

담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 장소에서는 물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너나 할것 없이 피워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담배자판기까지 생겨 이제는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필수 있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TV프로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 가게를 양심가게라 하여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양심가게는 10의 1꼴로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청소년인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담배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의 양심을 되찾자는 일념과 동시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각한 흡연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프로였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흡연 인구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 때때로 숨쉬기가 곤란하고 기분이 좋지않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저도 그러려니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과자먹듯 피워대는 이유는 첫째, 바쁜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마약성분인 니코틴과 타아르가 담배를 피는 순간 정신적은 안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둘째, 호기심으로 한번 피워보았다가 끊을 수 없게 되어 피는 경우. 셋째, 살을 빼기 위하여(이것은 여자들이 주로 변명하듯 하는 말이지만) 등등이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한사람으로써,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피우는 사람이 더많은 이 현실에서 여러가지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수 없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워보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수는 없을 것이고 흡연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모든 담배판매를 금지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자신의 건강을 위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런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텐데요.